

‘헌신적 공무원상’ 언론 등 각계에서 재조명 고법, 배평암 회장에 공무상재해 판정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의 「헌신적인 공무원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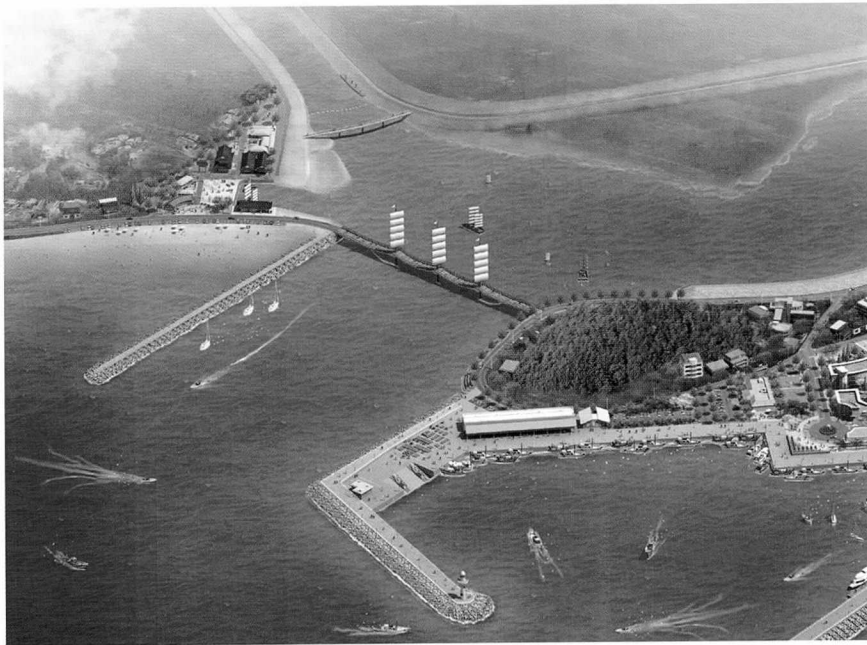
1999년 UN의 200해리 EEZ수역 선포 후 한반도 주변 국가들간 어업협정이 진행되는 등 수산업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 배 회장은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어업협상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밤샘을 해야했고, 특히 '99년 11월과 12월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할 때는 보드카와 안동소주를 섞어 마시며 폭음협상을 했다. 다음날 배회장은 간경변 합병증으로 쓰러졌고, 이후에도 한·일, 한·중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해외출장과 격투에 시달리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간성훈수로 또 다시 쓰러졌고, 결국 2005년 5월 사임했다. 배 회장이 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해양수산부 동료들이 적극 나서 2004년에서야 당시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재해

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어 간 질환을 공무원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배회장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후 7년여만인 지난 1월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그에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팽팽하게 진행되던 어업협상 상황 속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배 회장의 헌신적인 공무원상이 재조명되고 있고, 이에 KBS, MBC, SBS, YTN 등 주요방송사와 조선일보, 경향신문, 부산일보, 매일경제 등 일간지들은 잇따라 배회장의 몸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전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을 비롯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표상을 보여준 사례라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올해 어촌·어항에 2,635억원 투자 어촌개발모델시범사업실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올해 어촌·어항투자 예산은 지난해 보다 175억여원 증액된 2,63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가어항건설에는 1,218억여원이, 지방어항건설에는 487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다기능어항개발 등 어촌어항관광 개발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285억여원이 증액된 609억여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280억여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 투자항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하고 활용도가 높은 어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 위주의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어항 지정은 어촌·어항

법의 절차·기준을 따르고 경제성 분석 등도 실시하여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함께 어촌의 다원적 면을 활용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차원의 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관광·휴양·정주형 등 다양한 기능의 어촌개발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신규국가어항지정과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중·장기 개발 및 투자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어항 시설물 98.3% 양호

전체 655개소 시설물 70%이상 A등급, 28%이상 B등급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위탁업무로 실시해온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한 지난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정성이 대부분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국가어항 시설물 방파제(187개소), 물양장(156개소), 안벽(4개소), 방사제(17개소), 호안(102개소) 등 총 65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70.1%인 459개소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28.2%인 185개소가 구조물의 주요부는 건전한 상태지만 보조부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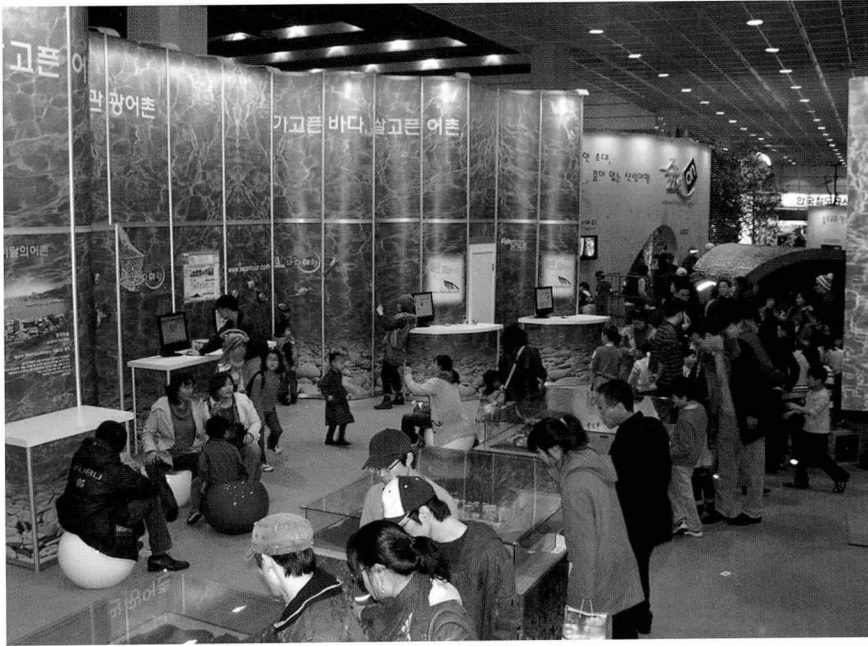
또, 9개소 1.4%는 보통 상태인 C등급, 2개소 0.3%가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 그리고 즉시 사용금지를 요하는 E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상반기 C등급에서 그간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A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은 강구항 물양장과 계마항 호안, 초도항 경사식 물양장 등 3곳이었다.

시설물에 대한 멀티빔 단면조사, 수상 및 수중부 외관 조사, 콘크리트 내구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밀점검(수중조사)은 금진항, 안도항, 물건항, 김녕항 등 4개항 1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6개 시설물 A등급, 8개 시설물이 B등급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금진항과 안도항의 경우 방파제 일부구간의 보수가 필요하며, 물건항과 김녕항은 모든 구조물에 대해 당장의 보수는 필요치 않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나라여행박람회 「어촌·어항특별관」 운영 어촌체험관광 관련 국민적 관심 제고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COEX 3층 대서양홀에서 열린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어촌·어항특별관을 운영했다.

40여평의 독립부스로 설치된 어촌·어항 특별관은 최근 주2일 휴무제 실시와 함께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어촌 어항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일반인에게 상세히 소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박람회 기간 동안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와 '아름다운 어촌 100선'을 소개하는 PDP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미래의 어촌 어항을 한 눈에 보여주는 어촌어항 관광모델(Ⅰ·Ⅱ·Ⅲ 모델) 조

형물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어촌 어항 사진 10여점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이달의 아름다운 어촌' 등을 홍보하여 뛰어난 관광지로서의 어촌 어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협회가 운영 중인 해양관광 포털 사이트 '바다여행'(www.seantour.com)과 한국 수산회의 '피쉬세일'(www.fishsale.co.kr) 사이트도 상세히 소개하여 일반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아름다운 어촌 100선'과 '어촌사랑 자매결연' 홍보 책자를 배포하여 일반인이 어촌·어항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어촌·어항특별관 내에는 각종 바다생물의 생태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바다생물생태체험장'을 전시하여 박람회장을 찾은 일반인들로부터 이색적인 어촌관광 홍보의 장을 펼쳤다는 평을 얻었다.

해양폐기물 정책혁신 워크숍 개최

해양정화업무 담당자 간 역량 제고 및 화합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9일 까지 양일 간 대전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제1회 해양쓰레기 및 오염퇴적물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이 행사는 관련 지자체 및 지방청 해양폐기물 담당자, 단위수협 수매사업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및 수거업체 인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내용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장기추진전략

및 주요 성과 관리과제, '07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정책 홍보가 있었고, 해역과 육역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복원 판단 및 제거기준에 대한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의 지역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접근 방향 및 소속기관의 업무역량 제고 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해양정화사업 실무진의 업무 소양을 증진시키는 계기와 해양정화사업 관계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